

“화합종단 만들겠다” 한 목소리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후보 정책분석 지선-정대스님 '파전' 예상

수행승-정치승 틈 못 좁혀

고산스님 왜 불출마 선언했나

‘종단정치 맑히기’

도중하차로 막내려

고산스님이 끝내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유는 수행승과 정치승의 이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고산스님은 5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가진 특별기자 회견에서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며'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산중에 들어가 노구를 탁마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결국적으로 수행승의 종단정치 맑히기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9개월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도중하차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막을 내린 셈이다. 그렇지만 가능성이라도 보여줄 비대한 종도들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집행부의 한 스님도 "어차피 이 곳은 이해관계가 엮여진 정치판이다. 흠뻑물이라고 해서 밭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은 산중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냐"며 끝내 속말을 토로했다.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고산스님 재추대'가 깨지고 경선 구도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산스님은 10월 29일 출마선언 회견에서 "대중의 뜻에 따라 (출마)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경선구도로 굳어졌으며, 이같은 변화가 불출마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세인들은 종권다툼으로 본다. 고산스님도 종권에 집착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로 고산스님의 뜻을 전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의 당선자를 좌우할 수 있는 총회 내 최대그룹인 육화회가 지선스님 지지로 방향을 잡은 것에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성운 기자

15일 실시되는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한 지선, 정대, 장주스님은 정책자료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을 발표하며 종단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지선스님은 '일용살림체제의 확립'을 중심으로 한 대대통합 조치 단행 △사회복지 기능 강화 △선불교 중흥 △국립공립인장 폐지 △국제연대사업 확대 등 7대 분야 30개 공약을, 정대스님은 △종교진흥법 제정 △화합하는 종단 △포교와 승가 및 신

도교육 매진 △미래사회를 향도하는 종단 구현, 장주스님은 △교구본사중심제로 전환 △포교인 교육원 기능의 강화 △지역사회 및 특별분담금사찰제도의 폐지 △종단차원의 수익사업 운영 △중앙총회 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번 선거에는 세 후보가 출마했지만, 지선-정대 두 스님의 경쟁으로 압축된 가운데 두 스님 모두 '일용살림'과 '화합종단 구현'을 강조하며 징계사 사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선스님의 공약 중에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불교관계법 개정, 국립공립인장 폐지, 남북불교교류국 신설, 불교 시민사회개발센터 등 10개 항목을 내놓았다.

반면 정대스님은 승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했다. 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 승가종합복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서구식의 가치관과

만연해 있는 종단을 수행중심의 모습으로 되찾겠다는 것이다.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 지선스님은 종도들의 공의를 모은 불교회관 건립을, 정대스님은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밝혀 조계사 성역화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기호1번 지선스님



일용살림 회복 △대통합 조치 단행 △수령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교구본사주지회의 위상 강화 △종책자문기구 구성 △중앙총회 활성화 △총무원장 권한 간소화

효율·책임있는 중무행정 △중무행정 전문화 △중앙총무원관 구조조정 단행 △사회복지 기능 강화

종단현실 맞는 재정정책 △종단 자산의 생산적 활용 △종단 예산 축소 및 분담금 정책 현실화 △종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역·특별분담금사찰 제도 행정성 제고

수행·교육 중심의 중무 운영 △선불교 중흥 △수행 중도 조성 △교육의 내실화 △역경사업 기반 확충

새시대 포교방략 추진 △수행과 전법 교화 활동의 안정성 보장 △신도교육의 강화 및 재가 위계제도 도입 △경보·문화 포교전략 수립 △신도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 포교 위한 사찰 역할 증대 △국립공립인장 폐지

한국불교 위상 제고 △대정부 교섭력 증대 △국립공립인장 폐지 △종교진흥법 및 복지 대책 마련 △월드컵 대비 불교문화 상품화 △불교의 대중화 국제화

통일시대 사회지도력 창출 △사회복지사업 지원 △남북 불교교류국 신설 △불교시민사회개발센터 설립 지원

- 46년 전남 창성 출생
- 61년 석산스님 은사로 득도
- 67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관음사 백암사 주지, 6대 중회의원, 전국연합 공동의장, 실천승가회 의장, 개척회의 상임부위원장 역임
- 현. 제2국추진위 상임위원

기호2번 정대스님



종지·종풍 진작 수행 중심의 가풍을 크게 진작하고 율장과 청규, 종헌종법의 정신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 승가종합복지 대책 수립, 역경불사 현대화, 화합 종단 종도들의 공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하고 군림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아래서 심부름하는 총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찰운영의 자율성 확대, 본사 역할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포교와 승가·신도교육 매진 △행차교육 정비 △기독교육 내실화 △신도교육 체계화 △중무원 전문역량 배양 △재가전문인력 육성 △연수교육의 지적 발전 도모

미래사회 향도하는 종단 △생명, 환경에 입각한 사회활동 강화 △민족화합을 위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불교사상과 민족문화 창달 △불교정보화 마인드 구축 △불교 종합회관 건립

- 37년 경북 울주 출생
- 63년 전진스님 은사로 득도
- 67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홍주사 신록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4-5 7-11대 중회의원, 중회의장 역임
- 현 중회의원, 동국학원 이사, 평화통일 자문위원

기호3번 장주스님



한국불교의 병폐는 보완적 수준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병이라고 확신한다. 전면적인 쇄신조치만이 한국불교를 살릴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병폐를 일시에 제거하고 포교와 수행에 전념케 해 모든 중생의 귀의처로 거듭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

교구본사 중심제 조계종단의 중흥의 전기를 마련기 위해 종단의 권력구조의 큰 틀을 총무원 중심제에서 교구본사 중심제로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 시행.

포교원·교육원 기능 강화 총무원에 직할교구 분담금으로 운영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포교원과 교육원의 기능을 강화.

직영·분담금사찰 제도 폐지 직영 및 분담금사찰의 존재는 그 지역 불교계를 위해 사용토록 한다. 총무원이 축소되면 직영·분담금사찰 제도는 불필요하다.

종단 차원 부대사업 안정적 종단운영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생수 판매 사업 등 전개하며, 나아가 수입의 일부를 재가신행단체에 지원.

중앙총회 기능 강화 중앙총회위원의 겸직을 허용한다. 중앙총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의 기능을 확대한다.

- 49년 제주 출생
- 60년 월산스님 은사 사미계
- 70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임해사 오아사 주지 역임
- 현 중회의원, 법보신문사 사장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필요성 대두

“경쟁구도 승가질서 역행”

재가여론수렴 제도적 장치도 필요

이번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 과연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합당한 절차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종책과 인물 경쟁으로 종도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이므로 재가자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중회의원은 선거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경쟁적인 요소가 승가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년 이상 수행 또는 포교에 정진해온 후보가 상좌별인 선거인단을 속수

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환표를 '부탁' 하는 모습은 위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승가의 정서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이 큰 이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속에 비쳐지고, 과열양상이 나타나면 종권다툼으로 매도될 수도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중회의원은 "선거라는 공간은 통해 종책을 내놓고 종도들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종단의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다"며 당분간은 경선을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 제도가 불가

피하며 반론을 폈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가자 입장에서 '스님들만의 행사'라며 비판을 토로한다. 한 재가단체 간부는 "자칫 선거인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선자가 좌우될 때 정책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가불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현재처럼 중회의원과 교구에서 뽑힌 선거인단 321명이 뽑는 총무원장선거로는 재가불자의 의견이 작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스님은 아예 지금과 같은 선거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원로의원과 계단위원 등 종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후보자가 없이 총무원장 대상을 응지에 기명, 최다 득표자를 총무원장으로 뽑자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새 천년을 목전에 맞이하여 '정치실종'이나 '정치부재'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인의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즈음 온통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언론문선'의 여파와 미래에 이 나라를 걸머질 자신들의 자녀가 유혹장에서 때죽음을 당해도 슬퍼하기는 커녕 내 자식 아니어서 무관심한 듯 단정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

정치인이나 정부관료의 병역기피가 밝혀지면서 그들의 결과 속이 다른 이중적 마음에 또 한번 허를 찌를 수 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나 구치소 경력까지 들추어내면 국민은 모두 실신할런지도 모른다.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받아쓰고 유권자의 피맺힌 돈을 정치자금으로 끌어다 쓰며, 고급 승용차에 호의호식하

환골탈태(換骨脫胎)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말인가.

언론은 정론직필이 생명이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에 거는 기대는 암암실은 대다수의 기자들마저 독자들을 의심케하고 있다. 조계사의 만명대중의 일상분란한 집회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문전에서 싸우는 소수의 폭력만을 부각시켜 외신에까지 띄우는 언론은 '언론문선' 사건과 함께 진정 정치의 시너이는 없다. 정치도 언론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한시바빠 어리석은 미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함정행경(阿含正行經)에 "미혹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정심(正心)이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바른 마음을 가진 솔직한 정치인 언론인을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논설위원)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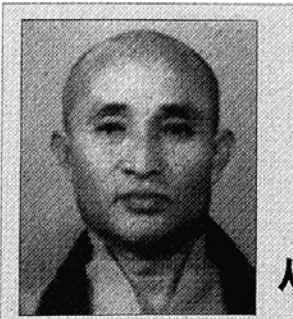
정치력 실증시대

며, 실속없는 큰 소리만 치고 싸움만 배라배라하는 이들만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세상, 때 빠지게 팔뚝리며 한숨만 짓고 살아가며, 선거철이면 그래도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한 표 찍어 주어야 하는 국민의 이 아픈 마음 누가 알아줄까.

집권여당이 사상유래 없이 돌이나 되면서도 정말 이 나라를 풀어나갈 영도력과 창의력이 없다는 말인가. 막강한 행정경력과 정치경력을 가진 단일 야당은 왜 이를 살려 국민의 편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입장에서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정책광고입니다.

경험과 연륜으로 여는 안정과 화합의 종단!



기호 2번 서정대(徐正大)

- 수행이력
- 출생: 1937년 3월 7일생
- 수계: 1963년 -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7년 - 통도사에서 비구계 수지
- 학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사 수료
- 이력: 1964년 - 수원 용주사 중앙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도봉산 망월사, 덕숭산 수덕사 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성만
- 1969년 - 83년, 경기 여주 신록사 주지 역임
- 1973년 - 총무원 사회국장, 재정국장, 규정국장 역임
- 1974년 - 총무원 사회부장, 77년 재무부장, 80년 사회부장, 81년 재무부장, 82년 사회부장, 85년 총무부장, 87년 부원장 역임
- 1975년 - 4대, 5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중앙총회의원(現)
- 1983년 - 94년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역임
- 1984년 - 제8대 중앙총회 부의장 역임
- 1988년 - 91년 제9대 중앙총회 의장 역임
- 1989년 - (재)불교방송 이사 역임
- 1989년 - 95년 - 문화체육위원 역임
- 1991년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現), 평화통일 자문위원(現)

• 이사(理事)가 원용한 중무행정

금번 종단 사태는 우리 종단의 청정 수행가풍과 승가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풍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오랜 전통인 수행정신을 크게 진작시켜 종지와 범법을 선양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종단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의 효율성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 경륜과 지도력 필요

스님은 근 40년 가까운 승려생활에서 일선 말사에서부터 수발사, 본사주지 소임을 두루 거치시고, 총무원의 주요 부장과 부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중무행정의 경륜과 지도력을 인정받으셨고,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총회의 제9대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8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주요 종단현안을 원만히 조정하여 그 정지력과 조정력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종단 안팎의 주요 공직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높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종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조정자로서, 때로는 중심에서 서서 탁월한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원로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종도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난국을 수습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반석위에 올려 놓고 종단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책임있는 자세와 더불어 오랜 행정 경험속에서 쌓여진 연륜과 지도력을 겸비한 스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종단 자주성을 회복해야

분규로 얼룩진 최근 교단사는 우리 스스로 1600여년 유구한 불교의 사상적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켜내지 못한 종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분규의 교단사를 끝내고 화합과 청정수행교단을 수립하는 길은 종정 이하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전 종도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다시 확고하고 화합승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내분이 있다면 일단 덮어두고 원용무애한 단결과 화합의 조치로써 종단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것만이 현재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5대 정책과제 ◎
- 1. 종풍을 진작하는 종단

수행가풍 진작/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율장과 청규, 종헌종법에 근거한 청정종풍 확립/승가종합복지대책 수립/역경불사의 현대화

- 2. 화합하는 종단

종도대중의 공의제도 정착/원로 중진님의 의견수렴 정책화, 제도화/종정 이하 원로스님의 위상 제고/부단한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원칙적인 대사전 단행

- 3. 종도를 받드는 종단

종단 운영의 정례 보고 및 공개/중무행정 서비스제도 도입/사찰운영의 자율성 확대/본사 역할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 4. 포교와 교육에 매진하는 종단

행차교육 정비/기본교육 내실화/신도교육 체계화/중무원 전문역량 배양/ 재가전문인력 육성/연수교육의 질적 발전 도모

- 5. 미래사회를 향도하는 종단

생명, 환경에 입각한 사회활동 강화/민족화합을 위한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불교사상과 민족문화창달/불교정보화 마인드 구축/불교종합회관 건립